

철학사

22 초기 중세 철학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오늘은 초기 중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초기 중세 철학에 대한 내용은 칠판에 적어 놓았으니,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세 기독교 철학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 철학에서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인데, 이 세 종교는 유신론적 종교, 즉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창조주 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세 주요 유신론 종교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에, 여러 철학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시간과 영원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신과 창조는 무엇일까요? 보편자와 형상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부합할까요? 신앙과 철학의 관계는 어떨까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존재할까요? 이처럼 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세 종교 전통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통 모두 중세 후기에 널리 퍼진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반화입니다. 두 번째는, 대략 서기 1000년까지의 초기 중세 시대의 주요 공헌, 즉 지속적인 공헌은 종교적 신앙과 이러한 철학적 전통 간의 관계와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정의하고 탐구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세 후기, 적어도 그 이후에는 더욱 집중적이고 건설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을 탐구하고 정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아를의 윌리엄 같은 인물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네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 초기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즉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상당 부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될 슈툼프의 책 7장과 8장이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플라톤의 영향,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점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면 플라톤뿐 아니라 신플라톤주의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의 영향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사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섞여 있어서 때로는 둘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구분은 신의 존재 자체에서 발산되는 창조, 즉 신플라톤주의의 발산설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사이의 차이에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차이점이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의 중요성이 당시 철학 운동 전체에 스며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러 인물들 에게서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 그중 한 명은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테스입니다. 적어도 그가 스스로 붙인 필명은 그렇습니다.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아테네 방문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교한 후, 참석했던 철학자들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는데, 그중에 디오니시우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세 인물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와 스스로를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우스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가짜 디오니시우스' 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디오니시우스와 아레오파고스의 디오니시우스는 동일 인물입니다. 서기 500년경 인물이죠.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고려하면 그가 남긴 내용은 거의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로부터 파생된 존재들의 위계질서. 맞아, 그게 신플라톤주의의 핵심 주장이지. 하나로부터 파생된 존재들의 위계질서.

다양한 정도의 통일성과 질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질서가 높아질수록 유사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이신 하느님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선하심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한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도의 차이로 볼 때 세상의 모든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이 모두 나타납니다. 디오니시우스에게 있어 이러한 종교의 결과는 플로티누스의 사상과 매우 유사한 신비주의적 길이었습니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적 신비주의를 통해 후대의 여러 신비주의 작가들이 따르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13세기에 활동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읽게 될 독일 작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는 신이 모든 이성을 초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 길은 신과의 합일로 이끈다. 플로티누스와 매우 비슷하게 들리네요. 디오니소스는 이러한 영향의 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로 존 스코투스 에루기나가 있습니다. 제가 존 스코투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를 중세 후기의 중요한 인물인 둔스 스코투스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름뿐인데, 이 이름은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나타냅니다. 바로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아일랜드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인들. 그런데 존 스코투스 둔스 스코투스. 존 스코투스 에루기나에 대해 중요한 점은, 다시 말하지만, 신플라톤주의 전통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와 하나로 되돌아가는 에너지의 순환 과정을 고려할 때, 신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을 구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만물의 근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선함, 진리, 그리고 우리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의 존재도 초월한 존재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부정적인 표현, 즉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만 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문자적 또는 정확한 의미에서도 신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는 로고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플로티누스와 제우스처럼 모든 형태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그의 언어에서 창조된 창조자를 의미합니다. '창조된 창조자'라는 용어에 주목하십시오.

영원불변이나 공존이라기보다는, 로고스를 구성하는 형태들은 그 형태에 따라 세상의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형성되는 원형, 패턴, 모범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존재들의 세계는 그러한 형태들에 참여하며, 창조되었지만 창조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론적 특성상 결국 하나로 회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체 과정의 궁극적 원인이시며, 그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 질서, 그리고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비창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명칭을 알게 될 때쯤이면, 적어도 고두스 에로게나가 논리학에서 배중률을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언급하는 모든 것은 창조자이거나 비창조자이며, 창조되었거나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를 적용합니다.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창조된 창조자. 창조되었지만 창조되지 않은 존재.

창조되지 않은 비창조자. 하지만 그는 신플라톤주의적 발산 체계 안에서 창조의 형식적 원인뿐 아니라 목적적 원인, 그리고 물질적 원인으로서의 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중세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관심을 끄는 인물입니다.

디오니시우스와 에리우게나에게서 신플라톤주의적 요소가 보이시나요? 디오니시우스 1세는 500년경에 사망했고, 에리우게나는 877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세 번째 인물은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인데, 바로 성 안셀름입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캔터베리의 초대 대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필기 노트를 찾고 있어요. 필기 노트 말이에요. 한 페이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편리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네요. 뭐, 당분간은 되는대로 해 봐야겠어요. 안셀무스는 서기 1000년경부터 11세기까지 활동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매우 강하지만, 발산론보다는 창조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플로티누스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훨씬 더 깊이 따랐기 때문이며, 따라서 발산론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따르면서도, 창조 세계 전체에 걸쳐 존재의 단계와 선의 단계가 존재하는 일종의 위계질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선하십니다. 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며, 창조된

모든 사물의 선은 본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상론에 따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신이 부여한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존재와 선의 위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 본성은 단순히 선을 이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신을 모방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합당하며, 모든 창조물에게 유익합니다. 변함없는 완전함을 지닌 신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 본성입니다.

존재의 위계 전체에 걸쳐 그 정도가 점차 높아집니다. 이것이 그의 전반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안셀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 틀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 내재된 두 가지를 결합합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헌신입니다. 그래서 안셀무스의 철학 논문을 읽다 보면, 그의 철학적 사유 곳곳에 기도나 찬양, 혹은 그 밖의 어떤 것이든 간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고대 그리스 작가와 시인들이 자신의 저술을 신들에게 바치는 송가나 찬양으로 시작했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셀무스의 글을 더 읽어보면 이것이 중세 수도원에서 행해졌던 성찰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즉, 그 일은 신을 찬양하는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작업이 철학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전체에 걸쳐 자발적인 찬양의 표현들이 삽입되었습니다. 요점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방하고 찬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셀무스가 가장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 카우프만의 저서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론적 논증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이고 기독교적이며 플라톤주의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킨 형이상학적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존재의 단계, 선의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계질서상 가장 높은 존재는 완전한 선과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틀을 전제로 한다면, 그의 존재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완벽한 존재는 상상할 수 없다는 완벽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제 여러분은 그 추가 설명, 즉 마지막 결론이 이 틀 없이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선의 필연적 존재는 존재의 본질 전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체계 의존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을 살펴보면 그의 논증 역시 체계 의존적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다시 말해, 그가 활동하는 사고의 틀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체계 의존적 이지 않은 논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논증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떤 전제든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셀무스의 논증에서는 특히 이러한 전제가 두드러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논증의 가치가 중립적인 출발점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사고 체계에서 신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신이라는 개념 없이는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할 수 없습니다. 안셀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 , 만약 카우프만을 옆에 두고 있다면, 522페이지를 잠깐 살펴보세요. 그의 주장이 아주 간략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522페이지. 그는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떤 대상이 이해의 영역에 있는 것과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화가가 먼저 자신이 만들 작품을 구상하고 이해하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비로소 이해 도 하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어리석은 자조차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한다고 한 주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조차도 적어도 이해력 안에서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네, 어리석은 자가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이해력 속에는 분명히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적어도 이해력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이해한다. 이해되는 것은 무엇이든 이해 속에 존재한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해 속에만 존재할 수 없다 .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이해 속에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해 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라는 생각은 완벽한 존재에게 하나의 완벽함이 결여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모순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라는 생각이 자기모순적이라면, 다른 대안은 존재하는 완벽한 존재라는 생각뿐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완전함을 갖춘 그 완벽한 존재의 필연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오직 이해력 속에만 존재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존재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자기모순적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 속에도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존재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립 불가능한 모순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상상할 수조차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진정한 존재가 있습니다 . 오 주 하나님이지요, 당신은 바로 그 존재이시며, 찬양의 종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자, 이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완벽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관념을 격하시켜 더 이상 완벽한 존재에 대한 관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완벽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는 존재 자체의 완벽함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안셀무스의 주장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 가우닐로라는 수도사가 반박했는데, 그는 안셀무스의 비유적 표현을 차용하여 스스로를 '바보 가우닐로'라고 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섬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안셀무스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섬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섬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죠."

그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우닐로 씨, 당신의 답변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논쟁의 핵심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체계 의존적 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논증은 존재의 위계라는 형이상학적 틀 안에서 구성된 것인데, 그 틀 안에서는 존재, 즉 실재는 하나의 완전하고 불변하며 불변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완전한 존재에 대한 어떤 관념도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관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체계 의존적인 논증입니다.

자, 안셀름, 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라이언입니다. 안셀름의 신에 대한 개념과 논증이 경험주의보다 관념론의 가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 의미인가요? 제 생각 에는 플라톤은 이상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거의... 네, 네. 이상주의와 경험주의를 대립시키는데, 경험주의자이면서도 이상주의자인 사람들도 있으니 적절한 대립 구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 버클리. 아마도 당신이 경험주의보다 합리주의를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경험적 증거와는 별개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선형적 논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경험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죠. 네.

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사고방식 의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것, 즉 어떤 사고방식은 어떤 주제에 적합하고 다른 사고방식은 다른 주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면, 저는 의학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에서는 경험적 방법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과 같이 감각 데이터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경험적 대상을 탐구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저는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개별적인 현상을 다루고 싶다면, 한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고 싶다면, 당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죠. 왜 모든 주제에 경험적 방법을 보편화해야 할까요? 그건 일종의 환원주의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방법론적으로 그런 전제를 세워서 다른 대안들을 배제하는 걸까요? 네. 반면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선형적인 추상적 추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논리와 현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겠죠.

이해되지요? 논리적 결론이 현실에 대해 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은 현실이 논리의 법칙에 부합한다는, 즉 논리적 사고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만 타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전통, 전체 그리스 전통,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유신론적 전통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창조주의 합리성을 긍정하고, 창조물의 안에 그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믿는 전통이죠. 이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논리의 법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사고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고 구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의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이 매우 주제넘은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논리의 기본 법칙은 A는 A와 같고 비A는 아니라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의 법칙은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네. 논리 법칙상으로는 환원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려면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유신론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셀무스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셀무스가 실재하는 형상, 실재하는 보편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철학이 더 발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실재하는 보편자는 로고스, 즉 창조자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며 창조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데에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의상 보편자는 이해 가능한 실체입니다. 이해되지요? 보편자는 추상적 사고, 즉 변증법을 통해 알 수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선형적 논증은 사물의 합리적 질서를 다루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인정한다면 이런 종류의 논증이 매우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체계를 인정한다면 이 논증이 타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지만 매우 적절한 논증 방식이라는 겁니다.

만약 논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논쟁이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점일 것입니다. 그의 주장을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존재라는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 그것이 바로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다시, 그러한 생각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라는 생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완벽한 존재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 완벽함에 대한 생각과 현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를 일관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이의를 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형이상학 적 틀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칸트가 그 틀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 이 논쟁을 촉발시킨 계기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가 한 말과 거의 같은 내용인가요? 네, 칸트는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적어도 그가 주로 주장하는 바는 존재가 고유 술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배울 때 이 부분을 다시 접하게 될 겁니다. 존재는 고유 술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존재는 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속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존재를 덧붙이는 것은 또 다른 완전함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함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 칸트의 말이 맞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존재는 완전함 일까요? 중세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런 이유로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 혁명 이후 칸트가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즉 순수한 물리적 사실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대사 있잖아요. 텅 비어 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물리적인 입자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니. 입자들.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가치 중립적입니다. 품질과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품질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중세인들에게 존재는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통일성은 사물에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정체성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성. 진실성.

다시 말해, 그것은 어떤 이해 가능한 본질을 구현해야 합니다. 선함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해 가능한 본질을 구현한다면, 그것은 존재의 위계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세인들은 모든 존재의 초월적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왜 안셀무스와 모순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칸트가 다른 형이상학적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전제들. 결국 다시 형이상학적 체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저는 존재론적 논증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좋은 토론이네요.

중요하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셀무스는 플라톤 전통에서 기독교적 사고를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우리에게도 또 누가 있지? 디오니시우스가 있고, 요한 스코투스 에리우게나가 있고, 안셀무스가 있지.

좋아요, 이제 두 명 더 추가할게요. 아비센나와 아베세브론입니다.

안셀무스가 이 전통을 잘 대표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아베센나는 이 전통을 잘 대표하는 이슬람인이고, 아베세브론은 이 전통을 잘 대표하는 유대교인입니다. 좋습니다. 아베센나는, 네, 발현체이자 하나와 다수, 영원한 것과 현세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발산, 필연적이고 영원한 과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이슬람 신플라톤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아베세브론, 즉 발산은 부정을 통해, 신이 아닌 것을 통해 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초월하여 신과 합일하는 신비로운 길. 그렇게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이제 중세 후기, 13세기에 우리는 보나벤투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나벤투라. 지금은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잃어버린 저서들이 재발견된 후,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극적인 철학의 정수로 여겨지면서도 유신론자에게는 문제점을 안겨주었던 시기에, 보나벤투라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완전히 부정하고 플라톤 전통을 계승하려 했다는 점만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제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에티우스, 마이모니데스, 아베로에스 세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기독교인, 마이모니데스는 유대인, 아베로에스는 무슬림이다. 보에티우스는 524년에 사망했다. 디오니시우스와 거의 같은 시기, 약간 어렸지만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가이자 주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도 가장 잘 전해지는 작품인 『철학의 위안』은 공교롭게도 감옥에서 쓰였습니다. 물론 『철학의 위안』은 지금도 번역본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보에티우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보편자 문제에 대한 그의 정립입니다. 그는 형상론과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초기 중세에 대한 이 의제의 다섯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 때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네. 유대인 작가인 마이모니데스는 그의 대표작인 《방황하는 자를 위한 안내서》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플라톤을 통해 유대교 신앙에 대해 시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같은 시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필로가 중기 플라톤주의에 대한 유대적 해석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유대적 해석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인물은 아베로에스입니다. 아베로에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에 다시 알려지게 된 것은 무슬림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며, 스페인에 있던 무슬림 철학자들의 관심 덕분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마이모니데스와 아베로에스는 같은 시기에 스페인 코르도바에 살았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이라니.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을 발전시켰는데, 플라톤의 영향도 약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개자들의 위계질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실재, 즉 신과 순수한 잠재성, 즉 원초적 물질 사이에 중개자들의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원소나 사물의 형태를 갖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실체인 신과 위계 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물질 사이에는 100개의 중간 지성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의 위계 구조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발산 과정입니다. 그의 견해는 인간의 영혼이 이 과정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죽음과 함께 개별 인간의 영혼은 우주적 이성적 영혼과 합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불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불멸이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 철학을 접하게 된 것은 중세 중반, 즉 11세기와 12세기에 아베로에스의 저작 덕분입니다.

아베로에스는 자신이 접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무슬림의 종교적 신념 사이에 충돌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하는 개념은 물질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즉, 물질은 영원하며, 그 잠재력은 신이 창조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인의 불멸성 상실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 하기 위해 아베로에스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바로 이중적 진리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이성의 진리와 구별됩니다.

신학적 진리는 철학적 진리와 구별됩니다. 그가 이 둘을 조화시킨 방식(만약 조화시켰다고 부를 수 있다면)은, 신앙과 종교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교육받지 못한 신자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철학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철학적인 표현 방식을 선호하는 듯 보입니다. 그 철학적인 표현 방식은 그가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영원히 철학적 성취의 정점을 대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베로에스는 특정 종교와 철학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결과, 이른바 신앙과 이성의 문제는 중세 후기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준비 기간 동안 신앙과 이성의 문제에 대해 발전해 나가는 몇 가지 대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변을 예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가 봅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는 안셀무스의 말처럼, "credo ut intelligam", 즉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세 논리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믿음은 이해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믿는 바를 이해해야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해의 단계이지만, 이해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따라서 철학과 신학이라는 합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철학적, 신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 동기 부여되고 인도되는 탐구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의해 인도되는 탐구입니다. 특히 안셀무스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활동은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물을 묵상하는 것이기에, 비록 형이상학의 복잡성에 빠져들게 되더라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수도 생활에 적합한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는 철학을 중립적인 이해나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철저히 종교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에서 출발하여 그 관점에서 믿음의 함의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의 철학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베로에스는 이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에 대한 개념은 12세기 기독교 저술가인 브라반트의 시거에게 계승되었는데, 그는 오늘날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로 알려진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랍어가 아닌 라틴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라틴'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서방 기독교 세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라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베로이즘. 이중적 진리 교리는 기독교 사상에 도입되었다. 브라반트의 시거는 종교와 철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진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중적 진리 교리를 기독교 사상에 접목시켰다.

종교적 담론은 엄격한 논리보다는 상상력과 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시거가 자신과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잘못 해석했음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라틴어 아베로에스주의는 우리에게 표준적인 참조점으로 전해져 왔다. 사실, 브라반트 출신 시거의 이 라틴어 아베로에스주의와 아베로에스가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반발로, 보나벤투라는 기독교화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 그리고 초기 플라톤 전통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의 사상에서 강조되는 점 중 하나는 로고스가 정신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는 로고스의 빛이 없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고스의 빛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아베로에스, 브라반트의 시거는 인간 정신에 신성한 깨달음이 있다는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배제되었죠.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등졌습니다.

자, 아베로에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의 불멸성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불멸성 문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문제점은 아닙니다.

또한 보편자 이론에 따르면, 신이 효율적 원인이 되어 창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단지 목적 원인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들이 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적 관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주의, 중기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기독교 플라톤주의, 즉 형상들이 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범이라는 플라톤주의의 핵심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신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으며, 모범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그 모범들을 구현하는 특정한 존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십시오.

개인을 개인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 형태의 결핍이죠. 신플라톤주의 전통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보나벤투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플라톤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개인을 개인답게 만드는 것은 그 개인 안에 종의 형상뿐 아니라 그 개인이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속성의 형상이 구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은 종의 형상과 모든 가능한 속성을 알기에, 개인을 규정하는 특정한 속성 조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개개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아심으로써 신은 충분한 원인으로써 작용하여 개개인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나벤투라는 개개인의 존재를 강조하는 교리를 도입하여 신이 개개인을 창조하고 개개인이 불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인의 불멸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플라톤은 개인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육체와 영혼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물질적 토대인데, 이는 물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모두에 중립적입니다.

공통된 물질 외에도 개인이 가진 모든 신체적 속성의 형상과 이성적 영혼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물질과 형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이면서도 물질과 이성적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불멸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보나벤투라는 플라톤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신은 개개인을 알고, 창조하며, 개개인의 불멸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베로에스와 보나벤투라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르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죠.